

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

[2024.1.31. 주민배심원 공약 조정 승인에 따라 조정 반영 후 실천계획서]

관리번호 54

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: 해당없음 ○ 도움필요(제도 ○ 재정 ● 권한 ○)
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 ●	총사업비 (백만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 내 ● 임기 후 ○		129.1	1.5	88.8	38.8	
사업기간	단기 ○ 중기 ● 장기 ○	추진상황	사업계획 추진 중				
예산구분	예산 ● 비예산 ○	사업주체	국가 ○ 전라북도 ● 무주군 ○				
추진부서	의료지원과장 박인자(8400) / 지역보건팀장 한영순(8410) / 담당자 허주은(8411)						

□ 현황 및 목표

○ 지원 근거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(난임 극복 지원사업)

○ 연도별 무주군 출생아 수 및 임신부 등록 수 현황

(2023년 12월 말 기준, 단위 : 명)

연도	출생아수	임산부 등록 수
2021년	63	71
2022년	62	52
2023년	43	60

- 정책 목표 : 난임부부에게 난임 관련 검사 및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며 나아가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극복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. ~ 2026.
- 총사업비 : 129.1백만원(국 1.5, 도 88.8, 군 38.8)
-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(2024~)
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→ 소득기준 폐지,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, 약제비 지원
 -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→ 소득기준 폐지,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, 약제비 지원
 -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: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(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)
 -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: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(총 2회, 최대 100만원)

□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기투자	입기 내						2027 ~
	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
총 계	129.1	0	129.1	16.9	17.7	31.5	31.5	31.5	0
국 비	1.5		1.5	-	-	0.5	0.5	0.5	-
도 비	88.8		88.8	12.7	13.1	21	21	21	-
군 비	38.8		38.8	4.2	4.6	10	10	10	-
기 타	0		0	-	-	-	-	-	-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명	단위	목표	2022	2023	2024	2025	2026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	회	5	1	1	1	1	1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	회	4		1	1	1	1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시행	회	3			1	1	1
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시행	회	3			1	1	1
연도별 이행률 목표 (%)			20	50	100	100	100

□ 추진계획

-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계획 수립 및 시행 2024. 02.
-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홍보 2024. 02.

□ 연차별 · 분기별 추진 일정

세부 추진사항	2022				2023				2024				2025				2026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																			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																				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																				
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																				

□ 추진실적

-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9건
-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4건
- 2023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1건

□ 기대효과

- 난임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춰 건강한 출산 및 개인의 삶 향상에 기여
-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